

Contents

2017. 03

장학과 담론

- 02** 명사 칼럼 도전은 짧게 사는 방식 _ 조벽 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
- 04** 특별 대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
 '점수 따기' 교육이 한국 사회 망쳐...
 새 시대 이끌 인재 육성에 역량 모아야
- 08** 장학리뷰 해외유학의 꿈을 이룬 함안 명덕고의 성공스토리

진학 가이드

- 12** 장학가이드 SNS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목!!!
 장학금 정보를 쉽고 빠르게!
 “한국장학재단 공식 SNS”
- 16** 이슈&트렌드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
- 20** 대학 탐방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를 찾아서
 발생부터 노화까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생명과학
- 24** 장학지원 수기 등록금 0원과 내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



한국장학 소식

- 26** 똑똑한 경제이야기 싯! 누군가 당신의 돈을 노린다
- 28** 장학 현장 학문과 열정, 낭만이 숨 쉬는 한국장학재단 연합생활관
 “더 큰 꿈으로 더 큰 미래를 보자”
- 34** 재단 소식
- 36** 특특 장학상담실



한국장학리뷰 2017년 3월호

등록일자 2015년 6월 11일 변경신고 2016년 11월 30일 등록번호 대구동, 라00018 발행처 한국장학재단(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발행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편집인 정홍주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장
편집기획·문의 김홍재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연구총괄팀장·김은경 연구총괄팀 대리 (053-238-2660, 2664) 인쇄 매일피앤아이
<한국장학리뷰>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고등교육 장학지원 정책 및 제도를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무료로 배포하는 월간지입니다.

도전은 점게 사는 방식

조벽

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
전 미시간공대 교수



도전하라. 아마 청년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일 것 같습니다. 변하고 혁신되고 바뀌어야 할 게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에 도전하지 않고는 순식간에 뒤처지거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코앞에 둔 저도 덩달아 도전을 하나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 각오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타성에 젖은 나태함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해 본적 없는 것’에 대한 편견

제가 시도한 새로운 도전은 친환경 건물 짓기입니다. 저와 제 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

한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는 ‘행복씨앗 심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 자그마한 건물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아끼며 모은 돈으로 짓는 건물이고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기에 더욱더 설렙니다.

운 좋게 훌륭한 건축가를 만나서 멋진 건물이 설계 되었습니다. 목재를 사용해서 건물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냥 원목이 아니라 단열성능을 극대화한 첨단 신소재로 가공해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목재의 뛰어난 내구성과 탄력성을 활용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최상의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새로운 재료와 공법으로 지으려고 하니 “못한다, 하지 말라, 안 된다” 등

말리거나 반대하거나 심지어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가지 각각입니다. “비용이 더 든다, 허가받기 어렵다, 지연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 마당에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로에너지 건축 재료와 방법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지 않나요. 발전과 혁신은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새로움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도전 그 자체가 아니던가요.

도전은 젊음이 성장하는 삶의 방식

저는 해외 최고 목재 건축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신기술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선했습니다.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와 기술자들 모두가 신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심드렁하게 앉아 아무 질문도 없고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수동적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일만 하겠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남이 한 것을 따라 하는 뒤처진 종류의 삶에 만족하겠다는 심리가 슬픕니다.

그중 한 명이 달랐습니다.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의 비전과 목적이 좋아서 시간이 나는 대로 추가

로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역시 도전은 젊음이의 몫인 모양입니다.

도전은 젊음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도전은 실패를 염두에 둔 행위입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 자신이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 도전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변화이며 발전입니다. 단기 목표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합니다. 그럼 왜 나는 도전하는가. 왜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고집하는가? 은퇴를 코앞에 둔 내가 10년도 채 사용하지도 못할 건물이 아니던가. 그냥 모두 하는 식대로 쉽게 빨리 지어서 하루라도 더 많이 쓰는 게 좋을 텐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일할 햇수가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10년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이 아니라 하루라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젊게 활기차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



‘점수 따기’ 교육이 한국 사회 망쳐... 새 시대 이끌 인재 육성에 역량 모아야



한국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를 빼놓을 수 없다. 안 이사장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을 두 번이나 연임한 행동하는 교육전문가로 유명하다.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을 결성,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인물. 지난해 5월부터 한국장학재단 3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장학금 서비스 폭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으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운영으로 한국장학재단을 새롭게 탈바꿈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이사장을 지낸 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는 경인여대 총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 온 국내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안양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3월 3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접견실에서 곽병선 전임 이사장을 만나 한국교육이 나갈 방향과 4차 산업에 대비한 인재육성 및 국가장학사업의 성과와 비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시대를 이끄는 힘은 교육이며,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옥 이사장(이하 안양옥)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곽병선 전 이사장(이하 곽병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대학에서 <교육학 개론>을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금년 새 학기부터 인천대에서 석좌교수로 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학생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상력과 결집력,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온 인재상

안양옥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곽병선 교육본령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본령을 회복한다는 말은 교육을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목표 자체에 충실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과학교육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한 과학교육은 크게 다릅니다. 교육을 시험 점수, 개인 영달이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어떠한 분야에 대한 공부던지 그 분야의 진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본분을 인간됨의 소양으로 체득시키는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향후 진행될 교육제도의 개혁과 혁신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에 밀바탕을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 사회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곽병선 인재상을 나타내는 좋은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것들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상상력’과 ‘결집력’의 두 단어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사회·국가·민족들을 보건데, 이 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대안과 경지를 추구하는 즉, 인간의 솟구치는 발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작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
본령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발견·창작·해석·비판·표현·설계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존재 양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척·진취적 사회는 그만큼 상상력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집력은 자유·평등·정의·예절·신의·정직·성실 등 인성·감성·윤리·도덕적 측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 덕목으로서 나보다 나와 너 둘을 앞세우고, 나와 너보다 더 큰 공동체를, 자기 지역·자기가 속한 정파보다 국익을 앞세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덕목입니다.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발휘하는 결집력 있는 사회가 안전과 공익실현은 물론, 최대다수와 최대행복의 공리를 추구해 생존경쟁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최근의 연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맹목적 대입 진학을 부추기는 기제가 되어서는 곤란

안양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인구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는데요,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요?

곽병선 국가공동체의 영속을 위한 구성원들의 기본적 책무를 부담 없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 그런 책무에 대한 의식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기 혼자만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들의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교육은 질문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양옥 대외 환경변화로 한국장학재단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곽병선 질 관리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발족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제도의 운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즉, 국가장학금제도는 학자금 수요면에서 필요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복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부실한 대학의 연

명책이나 경영난을 지탱해 주는 방편이 되거나, 대입진학을 맹목적으로 부추기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이 취업이 보장되는 내실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안양옥 특히 연간 4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재원의 배분에 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고등교육에서 형평성(equity)과 수월성(excellency)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요?

곽병선 국가장학금은 형평성의 필요조건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수월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대학에서 세계 500대 안에 들어간 대학을 비교하면 중국은 6개 대학에서 32대학으로 폭증한 반면, 한국은 8개 대학에서 11개 대학으로 3개 대학밖에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학 경쟁력에서 한국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피할 수는 상황입니다. 세계 일류수준을 향해서 뿔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오도록 장학금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곽병선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찾으면 일할 곳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출발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에 적응하고, 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단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양옥 오늘 경륜과 지혜를 갖춘 원로교수님께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학개론>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강단에 서시는 것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작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 본령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형평성의 필요조건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수월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유학의 꿈을 이룬 함안 명덕고의 성공스토리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이하 드림장학금)'은 저소득층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생의 꿈을 더욱 환하게 밝혀준 함안 명덕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드림장학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

김홍재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연구총괄팀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해서 기어이 해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 가족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과정을 잘 알기에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명덕고등학교에서 올해로 만 10년째 진로진학 상담을 맡고 있는 안영민 교사는 유서 깊은 학교에서 최근 새겨진 또 하나의 작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인공은 바로 몇 해 전 이 학교를 졸업한 배달별 학생.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지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덕고와 배달별 학생은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인 이 장학금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문 하나 놓치지 않는 관심에서 시작

드림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기에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여러 장학금 중 가장 어려운 학생들만을 지원하는 장학금에 속하며, 최대 지원 금액이 연간 5만 달러로 1인당 장학금액이 가장 크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



송영복 명덕고 교장



고 있는 장학제도이다. 명덕고의 배달별 학생은 과연 어떻게 드림장학금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든 것일까?

“시작은 공문 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선생님들은 공문 하나, 메일 하나라도 허투루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어떤 기회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덕고는 1966년 설립되어 반 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15학급에 460명이 재학하고 있으니 서울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관내의 자율형 학교로 진학하고, 남은 학생들이 우리학교로 진학합니다. 우리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애착과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큼니다.”

명덕고에서는 진로 및 진학 등 학생상담에 상당

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교과교사가 아닌 전문상담교사가 10년 넘게 ‘Wee클래스’라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드림장학생이 된 배달별 학생도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찾던 학생이었다.

“드림장학생 이야기는 2학년 담임선생님이 처음 들려주었는데 그 때 밝게 빛나던 학생의 눈빛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림장학금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회의 열쇠였기에 차원이 다른 동기부여를 준 것 같아요.”

체계적인 지원과 친구들 응원도 한 몫

배달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해서 명덕고에서는 태스크포스(TF)와 같은 팀이 꾸려졌다. 명덕고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까지 학생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 드림장학금으로 방향을 정하면서부터다. 하지만 해외유학을 준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안영민 명덕고 교사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들 기를 살려주고 싶습니다. 학생들 사기를 높이려고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은 우리 명덕고의 자랑거리죠.”

“영어라든가 공부는 학생이 워낙 열심히 따라와 줬어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들도 해외유학 경험이 없으니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한 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금 담당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영민 교사의 말처럼 드림장학금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공부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해외유학 준비는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국장학재단에서는 해외유학 전문가를 채용해서 카운슬링을 제공하

고 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하니 재단에서 제공하는 카운슬링과 학업장려비를 잘 활용하여 유학준비를 할 수 있다.

명덕고에서는 배달별 학생의 도전을 학생 전체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도 성공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주변 학생들의 응원이 준비를 계속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지역봉사와 인성교육이 화룡점정을 찍다!

드림장학금 성공스토리의 마지막 성공열쇠는 명덕고를 이끌고 있는 송영복 교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송 교장은 만나자마자 명덕고 학생들을 만나면 누구나 가장 먼저 학생들의 착한 인성에 반한다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지난 2월 7일부터 10일까지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멘토링 캠프’가 명덕고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를 찾은 교육부 이영차관과 한 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도 학생들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는 후문이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들 기를 살려주고 싶습니다. 학생들 사기를 높이려고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은 우리 명덕고의 자랑거리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명덕고에서는 이 역시 ‘학생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4명의 교사들이 포상담당관 교육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서는 활동성과에 따라서 금장과 은장, 동장의 3단계를 두고 있는데, 배달별 학생은 영국으로부터 동장에 이어 은장까지 포상을 받았다. 깨끗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와 함께 시

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제작하여 기증하기 봉사 활동을 매주 1시간씩 꾸준히 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인성을 강조하는 명덕고의 교육관에 따라 매 월 둘째주 토·일요일에 장애청소년과 1박 2일 문화 체험 캠프 학생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배달별 학생은 350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웠는데 자신이 속한 봉사동아리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미국의 대학은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것만 보지 않고 봉사활동도 아주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 경력이 학생이 높이 평가를 받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명덕고의 학교법인인 명덕육영회(이사장 윤정숙)는 현재 함안군 내에서 4개의 고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를 탄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금은 2017년을 맞이하여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다. 시·도 교육청 추천으로 선발방식도 바뀌고 지원 내용도 한층 강화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학생에 대한 관심, 전폭적 지원과 응원, 인성교육과 봉사활동으로 만들어낸 명덕고와 같은 드림장학금의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갈 전망이다. 🎓

선배가 들려주는 드림장학금 생생가이드

함안 명덕고를 졸업해서 현재 캐나다의 명문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배달별 학생. 그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드림장학금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생생한 조언을 들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정신보건학(Mental health)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3학년이고 코업(co-op)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인턴십 준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토론토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생활에 큰 제약이 없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잘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드림장학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2013년 5월에 2기로 선발이 됐었어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컸는데 유학으로 마음을 확실히 굳혔어요. 6월부터 영어공부에 집중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했던 1, 2기 대상의 공부방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학기 때는 대학 지원을 위해 에세이를 다듬고 지원 서류를 준비하면서 토플, SAT, ACT 등등 성적도 더 올려야 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동료 장학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준비했다면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같이 공부하고 준비한 동료 장학생들이 있어서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전국 곳곳의 다양한 곳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어공부와 내신 둘 중에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뽑힌 시기가 고3이었기 때문에 남은 내신도 잘 관리해야 했고 해외대학 지원을 위해 영어성적도 만들어야 했는데,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일정 수준의 영어성적을 충족한 이후에도 대학 진학 전까지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대학에 입학해 1학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리딩과 과제의 연속이거든요.”

드림장학생을 꿈꾸는 후배 고등학생들에게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힘들지만 그래도 유학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꼭 지원해주세요. 제가 이 장학금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외에서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기회를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드림장학생이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드림 장학생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은 때로는 고달픈 유학 생활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SNS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목!!!

장학금 정보를 쉽고 빠르게! “한국장학재단 공식 SNS”

이선영

한국장학재단
홍보실 대외국제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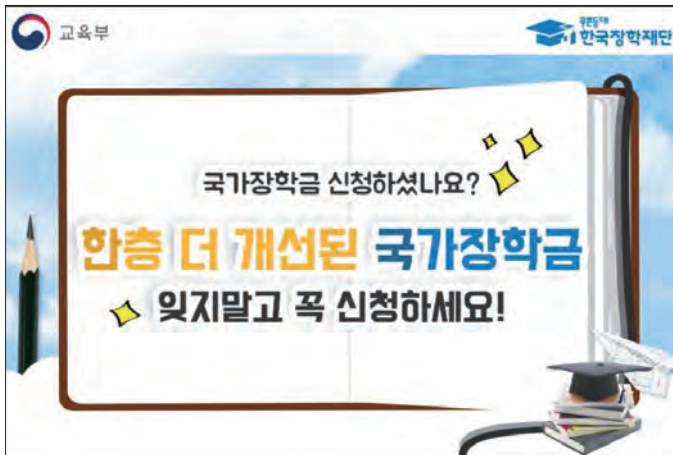


SNS의 특징은 그 기능만큼이나 다양하다. SNS는 즉시성, 공유성,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집단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SNS 역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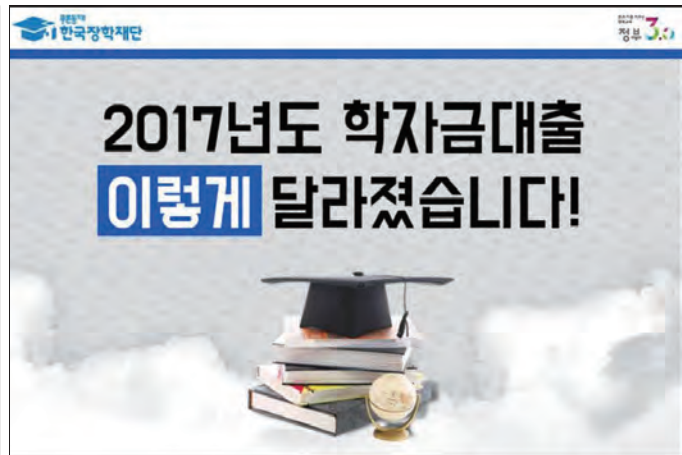
학자금 지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딱딱한 글로만 채워져 있는 정책소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지·동영상 등 다양한 전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SNS(Social Networking Site)는 웹툰·인포그래픽·이미지·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소개로 처음 정책을 접하는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SNS는 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학업·금융·어학지식·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생활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대학생들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톤로 마련을 위해 그들만의 문화가 녹아 있는 톤 앤 매너(tone & manner)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주 쓰는 엑셀 통합 함수’, ‘ppt 만들 때 도움 되는 사이트’ 등 대학생들에 필요한 자료를 SNS에 노출해 이용자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학부 모듈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토크에서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유입률과 구독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개선 사항 안내



학자금대출 개선 사항 안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1:1 맞춤형 상담

SNS 제공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역시 대학생들의 문의에 대한 실시간 응대가 가능해졌다. 모든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채널에서 상담 질의가 가능하도록 메신저를 오픈하여 '1:1 맞춤형 상담 채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보다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메신저와 댓글을 이용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SNS 상담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하여 콘텐츠로 제작하고 발행함으로써 열린 소통을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홍보대사가 함께하는 '국가장학금' 온오프라인 홍보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안내 콘텐츠

대학생 홍보대사가 말하는 '대학생이 알면 유용한 이야기'

재단 블로그 '드림캠퍼스'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가 전하는 이야기로 꾸며진다. 또래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구성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알면 유용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게재된다.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SNS 채널로 재공유되면서 확산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재단과 대학생들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홍보대사는 약 300명이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어우러져 주제가 매우 새롭고, 톡톡 튀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흥미로운 홍보대사 원고는 재단 블로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SNS에 접속해!

5초 안에 끝내는 SNS 친구 맺기!!

STEP 1)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리 중 즐겨하는 채널에 접속한다.

STEP 2) 상단 바에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한다.



STEP 3) 한국장학재단 페이지에서 소식 받기(또는 좋아요)를 꾸~욱 누르면 끝!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



2016년 3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습·추론 등 고도의 인지·사고능력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냈고, 사이버·물리 시스템 간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했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로봇·나노기술, 유전체·생물공학 등과 융합해 사회·문화·경제 더 나아가 일자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숙련 단순 노동과 중급 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반복 업무 영역도 점차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진화하고 확장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창의성과 사회성이 필요한 직업군 창출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역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졸업하면 공부 끝’ … 비효율적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얼마나 효율적일까?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은 최상위 학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OECD 34개국 중 1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치나 순위가 아니라 1~5등급으로 분류된 성취도 분포다. 예를 들어 ‘읽기’의 경우 한국은 지식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3등급 이상이 76%로 핀란드에 이어 2위였던 반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5등급은 6%에 불과했다. 학습효율성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학생이 주당 수학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6분으로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효율성 지표는 1.30으로 OECD 34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PISA 2012 기준). 가장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보인 국가는 주당 수학 학습시간 1분당 PISA 2012 수학 점수 3.72를 나타낸 오스트리아였다. 우리나라의 2.86배에 달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에 머물고, 수리력은 21개국에서 14위, PIACC 참여 22개국 중에서 15위였다. 우리나라의 성인 주당 학습시간은 평균 1시간 6분으로 PIACC 참여 OECD 회원국 중 4위로 상위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효율성 지표는 4.02로 OECD 20개국 중에서 19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은 세계 최고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보이지만, 성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역량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졸업하

면 공부 끝’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깊다. 대학입학을 위한 도구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공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졸업과 동시에 수학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적 실패를 통한 지식 체득 필요

그렇다면 저효율적 교육체제 구조를 고효율적 체제로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까. 먼저 교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입식’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탐구 지향적’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방법으로 ‘생산적 실패’를 제안한다. 탐구 지향적 교수·학습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토론과 토의를 해야 한다. 학생들은 각자 현재 자신의 지식수준에서 출발하여 상호 토론과 토의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정당화해 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익힌다. 누구나 동등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협상 과정을 익힌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실패경험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익힌 지식일수록 더 상기하며, 적용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을 ‘학습역설(learning paradox)’이라고 한다. 학습역설은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의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이다. 학습 과정에서 ‘생산적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

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지만 좌절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 제공,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제공, 서로 다른 해결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열려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 사용하는 많은 문제는 대체로 답이 하나인 ‘닫힌 문제’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소그룹 협동학습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도 교육의 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열린 문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유창성·융통성·독창성 등의 확산적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분석적·통합적·비판적 사고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호기심과 개방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책임과 용기·배려·인내 등의 인성적 요소를 신장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

고정관념을 깬 획기적 수업개선

더불어 교육에서 학습자는 주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때 고차원적 사고 활동은 분석·평가·창조를 지칭한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과 더불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인 지식 구성 능력도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이다. 고등교육의 학습자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과 팀워크, 리더십 등의 능력을 길

러야 한다. 고차원적 사고와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많은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제안됐다.

특히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을 교실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교수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거꾸로 수업은 교실 수업 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내용 및 자료,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학생에게 제공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동료학습자와의 토론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2015년 KBS 교실 혁신 프로젝트 ‘거꾸로 교실’ 진행 과정을 기록한 4부작 프로그램 방영 이후,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현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수자 역할이 최우선 변혁 과제

그러나 미국 하비머드대학(Harvey Mudd College)의 레이첼 레비(Rachel Levy)교수의 연구처럼 교수자의 역할이 수업 형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교실의 담화 패턴은 교사의 질문, 학생의 반응, 교사의 평가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업상황에서 학생은 주어진 지식을 수용하고, 기대된 결과를 산출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사는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역할과는 차별화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탐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배려와 존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의 질문을 존중하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속하여 탐구할 수 있게 응답하고, 필요한 기능을 가르쳐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학생의 결과나 학생의 말을 바탕으로 질문을 다시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담화를 ‘재성(revocing)’이라고 한다. 교사는 안내자와 조정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하는 수업 상황에서 구성원은 주어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활동과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완성해가는 구성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자신이 지식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여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창의성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고의 쇼크와 교육 대변혁

우리나라는 성적 경쟁 위주의 추격형 인재양성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지식정보 융합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최근에 발표한 PISA 2015 세계 순위 하락 추이가 우리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국제비교평가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ICT 기반 평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직업적 상황을 포함한 삶의 상황 전반이 급속도로 변화된다. 미래 세대가 변화무쌍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지식 전달에서 탈피해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알파고 쇼크가 교육의 변혁을 일으킬 특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빚어낸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사회와 지식공동체가 성찰하고 응답해야 할 때이다. 🎓



발생부터 노화까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생명과학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를 찾아서

글_ 장재훈 기자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영원한 소망에 도전하는 학문, 생명과학.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이 커지면서 생명과학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과학은 21세기 자연과학을 이끄는 선도과학으로 생명에 관계된 현상과 기능을 연구한다. 인체는 물론 동물·식물·미생물 등 다루는 영역 또한 광범위하다. 아울러 의료·환경·신약개발·생물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궁극적으로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종합학문이기도 하다.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는 생명체의 특성과 생명현상을 교육·연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생명과학의 영역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세포생물학·면역학·식물분자생리학·분자세균학·암생물학·뇌과학·환경생태학·분자바이러스학·분자세포발생학·구조생물학·발생유전학·단백질기능체학·전기신경생리학·분자세포생리학·식물생리학 등 과학과 의학을 넘나드는 광폭 스펙트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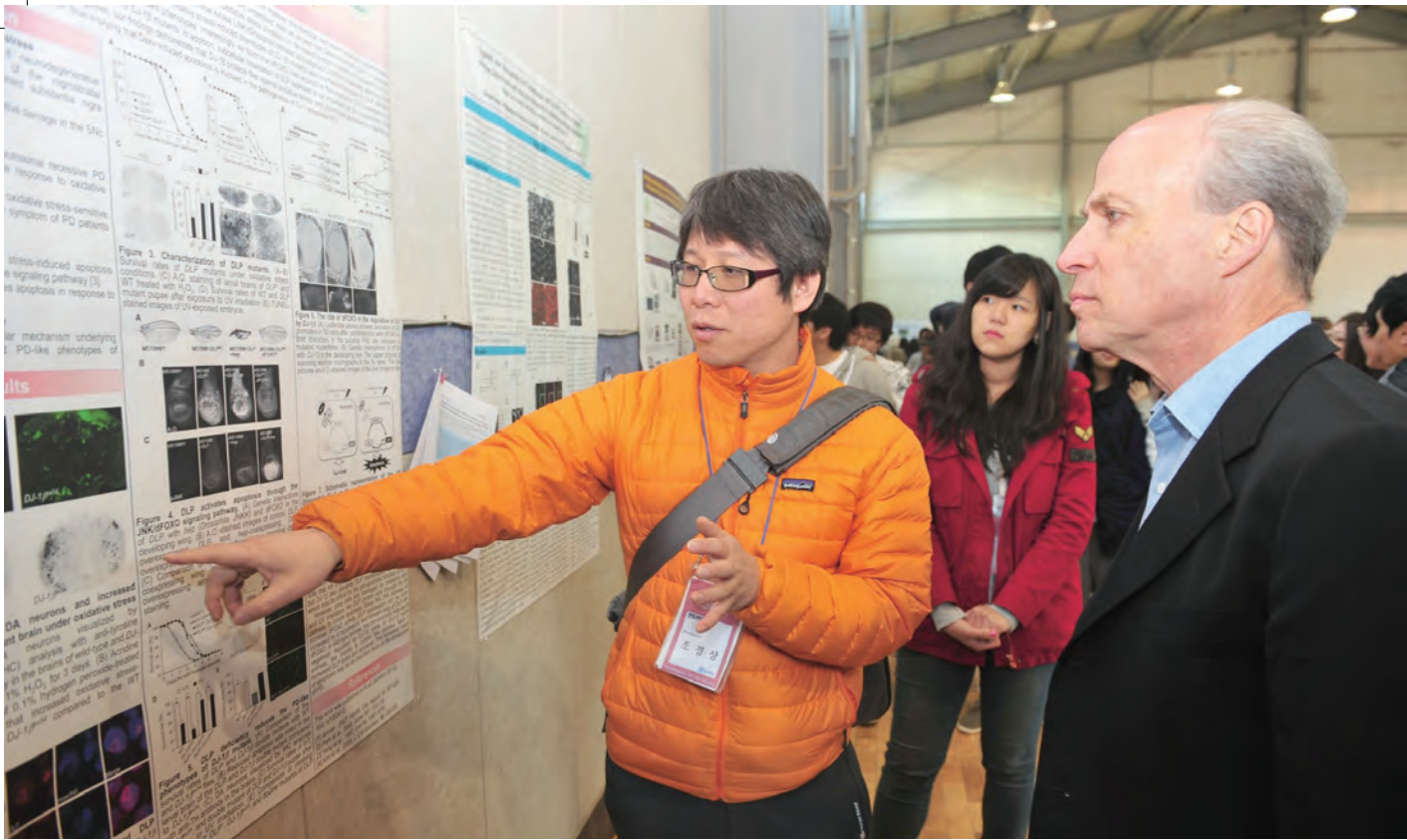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포학. 생명과학특성학과는 핵심 연구분야다. 세포의 기원과 진화에서부터 세포의 화학적 접근, 유전정보의 전달, 세포구조와 기능, 세포의 조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관절염 치료의 경우 관절부위의 세포 활동과 변화를 관측, 어떤 물질을 투입하면 관절염 치료에 좋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항암제에 저항이 생겨 항암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적을 때는 어떻게 치료 조건을 바꿔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약개발기술, 암 정복, 뇌 과학, 난치병 치료, 형질전환기술, 유전체 해석 및 기능, 지구온난화 대처기술, 미생물 대사산물 이용기술, 면역학을 이용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이 모두 생명과학의 성과물들이다.

과학과 의학 넘나드는 생명과학의 광폭 스펙트럼

이뿐 아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주인 이소연씨가 우주에서 초파리의 발생 및 노화 실험을 한 것도 건국대 생명과학특성학과에 도움 아래 이뤄졌다. 이처럼 생명과학은 응용분야가 넓으면서도 기초과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험·연구교육을 중시한다. 예컨대 저학년 학생들도 교수연구실에서 1:1 지도를 받으며 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하계 리서치 캠프(Summer Research Camp, SRC)는 본과 2·3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6주 동안 실험실을 로테이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학회 참석 등 전반적인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매주 실험 방법과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적 강의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는 특별학부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간동안 독립적인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대 생명과학특성학과는 생명과학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다. LG 생명과학·삼성 Bioepis·SK 케미컬·한화 케미컬 등 대기업은 물론 생명공학연구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농촌진흥청·한국과학기술원 등 국책연구소와 원자력병원·울산대·한양대 의대 등에 연구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시중 은행과 보험회사·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도 취업자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생물학·생리학·면역학·뇌과학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등 취업 전망 밝고 장학금 혜택도 풍성

학생들이 중심이 된 즐거운 대학생활도 생명과학특성학과를 다니는 또 다른 특권이다. 학생들은 곤충반·식물반·미생물반을 구성, 관심분야에 따라 채집·사진전시회·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회화반·스포츠반 등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도 있어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대학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도 풍성하다. 공로장학금·근로장학금과 생명과학과 동문회에서 지급하는 동문장학금이 있

으며, 이외에도 성적장학금·가계지원장학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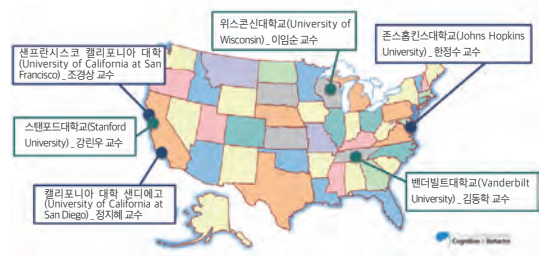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명과학특성학과는 학교에서 최고 인기 학과 중 하나로 꼽힌다. 뛰어난 연구 역량을 지닌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 그리고 졸업 후 각종 연구소와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재학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 학생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로 유명하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신입생들의 입학 커트라인도 매우 높아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교수들은 생명과학특성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과 끈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지식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실험과 연구가 많은 만큼 치열하게 몰입하는 집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험과 연구는 영화 속 장면처럼 화려하고 긴장감 넘치는 과정이 아니어서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수 백 번을 반복해야 하는 지루하고 고단한 과정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경호 교수는 “생명과학은 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생명의 근원을 쫓는 도전정신과 따뜻한 인간애가 필수 덕목”이라면서 “물리·화학·생물 등 기본적인 과학 과목을 좋아하고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 극복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열정적인 학생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연구소의 국제 활동



다양한 연구소 운영

- **한국햄프과학연구소(소장_조경상 교수 / 김은수 교수)**
유용자원 식물인 ‘햄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2006년 창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8~2010년 도에는 농림부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 **분자신경제어연구소(소장_한정수 교수)**
신경현상 및 신경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경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2012년 건국대 SMART 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집중 지원받고 있다.
- **암대사연구소(소장_이영한 교수)**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암 퇴행성 질환 염증 분야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비만 당뇨 등의 각종 대사성 질병과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및 뇌암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 **KU 글로벌 랩**
강린우 교수가 2006년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교수와 함께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 구조 연구와 타깃 단백질 구조 기반의 슈퍼박테리아에 항생제 신약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등록금 0원과 내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가는 대학생들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밝은 내일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은 희망스토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조한별 씨(24세)의 수기를 재편집하여 수록한다.

조한별
서울여자대학교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

3년 전 청천벽력과 같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그에 따른 퇴직, 할머니의 죽음 등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가족에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고, 가족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이 퇴직의 상실감에 빠져 집에만 계셨고, 오빠는 입대를, 어머니는 식당일과 휴일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며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학비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간절함은 4.34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되 돌아왔고, 성적표를 보며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국가장학금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을까?’부터 떠올립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한국장학재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진 가계상황이 반영되면서 소득1분위로 판정받았고,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0원 등록금’을 수혜 받아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학교생활에 더욱 더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꼭꼭 채운 21학점의 시간표, 학기 프로젝트. 전 계 연공 봉사활동에 복수전공까지 알찬 학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노력하면 감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고, 저는 매년 성적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로 학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하는 생활비는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부족한 용돈 탓에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늘어난 공부량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알게 되어 교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 덕분에 학업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은 시급 덕에 가끔은 다른 친구들과처럼 평범한 여대생으로서의 일상을 즐기는 작은 행복 또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금융 관련 공기업에서의 근로 경험은 진로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어 해당 기업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 기회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암울했던 우리 가족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희망이며, 우리 가족의 짐을 덜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등록금에서 해방... 새 희망을 찾다

이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은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혹은 저보다 힘든 상황에 부딪친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위로해줄 수는 없지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일상의 평범함’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자기라도 처음에는 흠에 불과했으며 저 역시 ‘나는 흠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절함이라는 물과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손길에 힘입어 그럴듯한 형태의 도자기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경제 상황으로 일상의 즐거움마저 뺏기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을 만나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주위환경에 치여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저를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준 한국장학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췌!

누군가 당신의 돈을 노린다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사실 누구도 모른다. 달러가치가 많이 올라 대박을 터뜨린 D 증권사를 보며 “지금 달러를 사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잘 모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금값을 물어보는 사람도 많다. 역시 알 수 없다. 그런데 시장 전망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믿어도 될까?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견희 회장보다 더 부자여야 하는 것 아닐까?

김원장

'KBS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진행자



논리적 시장 전망, 과연 믿어도 될까?

시장에는 과학적 전망이 난무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일전에 퇴임하고 잠깐 쉬고 계신 전 한국은행 총재를 사석에서 뵈 적이 있다. 그분은 돌이켜보니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참 무모했다고 말했다. KTX 역방향 좌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열차 안에서 앞으로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지나간 광경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어떤 경제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그제야 설명이 가능했다는 뜻으로 들었다.

그래서인지 자산 시장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그들이 진짜 전망을 잘한다면 서프브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붕괴는 왜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러니 전문가들의 투자권유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투자의 신 '조지 소로스'도 거액의 손실을 본다

혹자는 그래도 시장에 승률이 높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실제 그렇다. 증시의 혼란 '무림고수'부터 투자의 신 '조지 소로스'까지 실제

승률과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그 손실률이 높다는 변액연금조차 설정 1년도 안 돼 30%의 수익을 내는 상품도 있다. 물론 그들만의 비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1만 명이 참여한다면 승률이 90%를 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만약 1만 명이 러시아룰렛 게임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자. 한 번의 게임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5/6다. 6번의 경기를 하면 통계적으로 1번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만 명 중 누군가는 100번의 러시아룰렛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대중들은 열광한다. 언론은 그를 '운명도 이겨내는 도깨비'라고 부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기술'이 아니다. 2016년 초 중국의 역외시장에서 위안화를 대량 공매도하며 중국 외환시장을 공격한 '조지 소로스'는 중국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로 거액의 손실을 보았다.

큰돈을 벌고 싶은가? 그만큼 위험해지면 된다

소득도 낮고 일자리도 불안한 청년들에게 자본시장은 기회처럼 보인다. '주식투자'나 '선물투자'를 연구하는 대학 동아리가 인기다. 500만 원으로 1억 원을 모았다는 전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 1억 원은 어디서 왔을까? 결국 누군가의 손실이다.

지인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개발 아파트 투자에 관해 물어온다. 재개발 투자는 사업 승인의 진척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한다. 조합추진위가 만들어진 단지는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면, 큰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불거지면 재건축은 한

없이 미뤄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승인을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아 이주가 확정적인 단지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결국 재건축 아파트 투자도 '주식형 펀드'와 다름없다. 큰돈을 벌고 싶으면 그만큼 위험해진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다. '리스크와 수익률은 연동한다.'

저축의 최대 장점은 '돈을 뺏기지 않는 것'

그러니 청년이 전문가의 말을 믿고 어떤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수익률이 높다는 시장은 더 위험하다. 젊었을 때 실패하지 않으면 언제 실패하느냐고? 젊어서 실패한 투자는 돈만 잃는 게 아니다.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두고두고 건강한 시장 참여를 어렵게 한다. 다른 도전보다 훨씬 잃는 게 많다. 무엇보다 주머니가 얇은 청년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낮다.

그러니 청년들이여 믿지 마라. 어렵게 모은 돈을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정작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지갑이다. 저축의 최대 장점은 이자수익이 아니다. 그들에게 돈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





“더 큰 꿈으로 더 큰 미래를 보자”

학문과 열정, 낭만이 숨 쉬는
한국장학재단 연합생활관

클_김미리 기자



캠퍼스에 봄이 왔지만 기쁨도 잠시. 학기 초만 되면 언론의 단골 메뉴는 ‘대학가 방 구하기 전쟁’이다. 개강을 앞두고 방을 구하지 못해 찢찢매고 비싼 월세 때문에 마음고생 심한 학생들의 우울한 얼굴이 오버랩 된다. 대학에 기숙사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게다가 졸업을 늦추는 경우까지 겹쳐 기숙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대학들도 고민이다. 기숙사를 짓고 싶어도 대학가 원룸·하숙집 주인들의 반발 때문에 애를 먹는다. 해당 구청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허가해주겠다고 떠미는 바람에 착공도 못 한 곳이 수도룩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월세계약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의 평균 월세는 3.3㎡당 7만 4,000원이다.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의 크기를 20㎡로 가정하면 44만 원 정도 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밝힌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는 49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생 주거 안정 해결사 연합생활관 첫 입주

답답한 가슴을 뽕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소식은 어디 없을까?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이번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3월 2일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기부한 326억 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개관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연합생활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재학생 약 1,0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 기본형인 2인실을 비롯해 4인실과 가족실, 장애우실 등 모두 498실을 갖추고 있다.

연합생활관의 방 구조는 다양하다. 2인실 A형이 가장 많은데 한 방에 2벌의 침대와 책상이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개별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2인실 B형은 A형의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돼 총 4명이 사용한다. 4명이 공동 거실을 사용하지만, 침대와 화장실, 욕실 등이 개별적으로 갖춰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했다. 외국인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4인실도 구비돼 있다. 장애우실은 1인 1실로 화장실에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됐다. 취사시설이 모두 갖춰진 가족실은 부모님이 방문해 학생과 지낼 수 있



“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조성된
인성교육관은 어느 대학 생활관과 가장 차별되는 시설이다.

”



는 공간이다.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배려한 것이다.

한 발짝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내장재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선 개별 냉난방은 물론 방마다 공기청정시스템과 함께 매트리스, 개인별 책상과 책장, 수납공간, 화장실 등이 잘 차려져 있다. 또 화재에 대비, 벽지와 블라인드는 모두 방염 처리된 자재가 사용됐다. 무엇보다 E0 등급에 해당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원천 차단했다. 실제로 생활관 입주 학생 중 새집증후군을 호소한 학생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친환경 내장재에 편리성·안정성 갖춘 연합생활관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조성된 인성교육관은 여느 대학 생활관과 가장 차별되는 시설이다. 총 3층 규모로 지어진 이곳엔 어린이도서관과 대학생 열람실, 멘토링 룸 등이 각각 들어서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친화적 독서·문화 체험 공간으로 약 1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게 된다. 멘토링 룸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인들이 생활관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진로 고민과 상담, 취업 등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이 이뤄진다. 또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을 설립하는 등 인성교육 확산에 공을 들여온 안양옥 이사장의 인성교육 특강도 예정돼 있다.

성적과 취업 스트레스에 짓눌린 학생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제공해 주는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생활관 1층에는 동시에 2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이 들어서 있다. 하루 세끼가 제공되며 가격은 조식 2,500원, 중식과 석식은 3,200원으로 저렴하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맛과 영양, 그리고 위생이다.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니만큼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각층마다 휴게실과 동아리방이 다수 마련돼 있으며 지하에는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탁실·세탁소, 셀프키친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체력단련실은 웬만한 피트니스센터 뺄 수 준으로 시설이 뛰어나고, 셀프키친은 학생들이 간식용 라면도 끓여 먹고 TV를 보며 개인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무선인터넷은 편리성을 더해준다. 한국장학재단 측



취사시설이
모두 갖춰진 가족실은
부모님이나 친지 등이
방문해
학생과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배려한 것이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가족처럼 포근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생활관의 큰 장점이다.
안전한 생활관,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생활관,
학생들이 만족하는
생활관을 만드는 것이
장학재단의 목표다.

은 앞으로 1층 식당에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해 학생들이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대비도 철저하다. 발코니에는 안전바와 창문 스톱퍼가 설치되고 건물 모든 층마다 비상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 학생들이 집단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된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원흥역에서 연합생활관까지를 여성안심지역으로 설정, 경찰과 함께 강력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합생활관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사용료다. 보증금은 불과 15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퇴실할 때 돌려준다. 한 달 사용료는 15만 원이고 전기·수도·인터넷 등 관리비와 이용료는 아예 없다. 매달 15만 원만 내면 내 집과 같은 편의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속 대학으로부터 주거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실제 생활비는 월 10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인성교육관 설립...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연합생활관이 이처럼 학생 친화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던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재단의 기숙사사업팀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기숙사 100여 곳을 직접 둘러보며 장·단점과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했다. 안양옥 이사장도 직접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안전시설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관이란 입소문이 퍼지면서 1기 입주생 모집에 4천여 명이 몰려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연합생활관에 입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입주대상은 수도권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으로 당일 통학이 어려운 학생이어야 한다.

신·편입생의 경우는 수시와 정시 전형 및 편입시험 합격자로서 해당 학기 등록 예정자이며 재·복학생은 재학 중이거나 해당 학기 복학 예정자로 돼 있다. 외국인 대학생의 경우는 국내 대학 학적 등록자로 대학 및 기부처 추천을 받으면 된다. 현재

연합생활관이 학생 친화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던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재단의 기숙사사업팀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기숙사 100여 곳을 직접 둘러보며
장·단점과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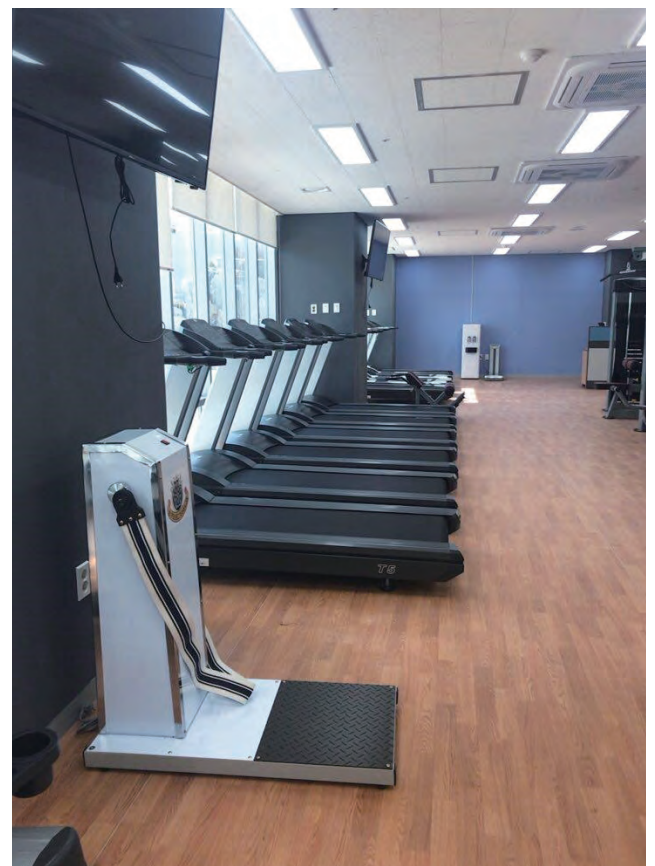
생활관에 입주한 외국인 학생은 1명, 서울 모 대학에 재학중
인 터키 출신 A 씨로 알려졌다.

반면 집단생활을 하는 탓에 전염성 질환자나 보균자는 입
주가 거부된다. 또 서울과 고양시 거주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장학재단이 입주생 구비서류로
건강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발 기준은 소득분위가 가장 우선 조건이다. 소득이 낮
을수록 우대된다. 다음으로 연합생활관과 대학 소재지와의
거리 즉, 연합생활관과 가까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유리하
다. 이어 보호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소속 대학과의 거리
등이 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된다. 다만 남녀 학생의 비
율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연합생활관
이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동
일 대학의 생활관생 비중을 15% 이내로 조정한 것 등이 대
표적이다.

김중순 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사업부장은 “여러 대학의 학
생들이 가족처럼 포근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생활관의 큰 장점”이라며 “안전한 생활관, 누구나 들
어오고 싶은 생활관, 학생들이 만족하는 생활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생의 로망이 된 연합생활관, 학생들은 이곳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미래를 보기 위해 땀을 흘릴 것이다. 먼 훗날
이곳이 그들에게 열정과 낭만이 숨 쉬던 찬란했던 순간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KOSAF news

‘한·일 학자금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2월 23일(목) 오전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한·일 학자금지원 정책세미나(Korea-Japan Seminar on Student Financial Aid Policy)'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게 무상장학금,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에 대한 운영 노하우 및 정책 방향성 등의 제언을 요청하면서 마련되었다. '한·일 학자금지원 정책세미나'는 양국 학자금지원 정책발표와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학자금지원 정책·고등교육정책 동향과 등록금제도·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현황에 대한 재단 측 발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 고바야시 마사유키(KOBAYASHI Masayuki) 조사단장이 일본 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경과 등 일본의 학자금지원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양옥 이사장은 "유사한 사회문화권에 있는 한·일 양국의 학자금지원 정책 세미나가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학자금지원에 대한 지식과 논의를 확장시켜 보다 현실성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학자금지원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장학재단, 정책연구위원 9명 위촉!

한국장학재단은 2월 17일(금)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9명을 재단의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연구위원은 오덕성 충남대 총장을 비롯하여 이상진 한국복지대 총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최일 목포대 총장,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김근수 전 여신



금융협회 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춘선 전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등이다.

재단은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단의 정책연구 방향,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재단 정책연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 및 상시 자문을 통해 정책연구위원으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재단이 국가장학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연구를 활성화하여 세계 최고의 종합장학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장학재단, 2017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 장학생’ 선발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으로 맞춤형 ‘푸른등대 기부 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하였다. 2017년 1학기에는 7개 기관(구찌코리아, 넥슨코리아, 대한LPG협회,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한국화웨이, 말남장학금, 한국투자공사)의 기부금으로 택시기사 가정의 자녀, 주얼리, 공학, 패션전공자 등 저소득층 신규 장학생 총 350명을 선발한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지난 1월 31(화)부터 2월 17일(금)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선발결과는 오는 4월에 발표된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모아 기부처별 지원분야에 따라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안양옥 이사장은 “정부 재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민간 장학금 등을 융합하여, 미래를 밝히는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Q&A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는 학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궁금증이 모이는 곳이다. 그중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가구원 동의 방법'과 '학자금 신청 절차'를 소개한다.

Q 이번 학기 제 소득구간(분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A 소득구간(분위)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을 의미합니다. 소득구간(분위)는 재단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학자금 수혜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과거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상 소득분위와 수혜 가능 학자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금 대비 장학금, 학자금 대출, 개인 부담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사전에 효율적으로 학자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7.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

구분	구간(분위) 경계값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분위(구간)	1,340,214원(이하)	30%
2분위(구간)	3,127,666원(이하)	70%
3분위(구간)	4,020,642원(이하)	90%
4분위(구간)	4,914,118원(이하)	110%
5분위(구간)	5,807,594원(이하)	130%
6분위(구간)	6,924,439원(이하)	155%
7분위(구간)	8,041,284원(이하)	180%
8분위(구간)	9,828,236원(이하)	220%
9분위(구간)	12,955,402원(이하)	290%
10분위(구간)	12,955,402원(초과)	-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4인 가구 기준)

Q 제가 신청한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승인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하신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승인되실 경우 등록금 대출은 소속 대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 내로 지급 실행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또는 생활비에 따라 실행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등록금 대출: 2017.1.9. ~ 3.31., 생활비 대출: 2017.1.9. ~ 5.15.).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후 17:00까지 가능하나, 학교와 은행의 수납 종료시간이 17:00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등록금 대출 실행이 불가 하오니 소속 대학교 납부 마감시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학자금 대출 실행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 신청 현황 및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지급 사유별 오류 발생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